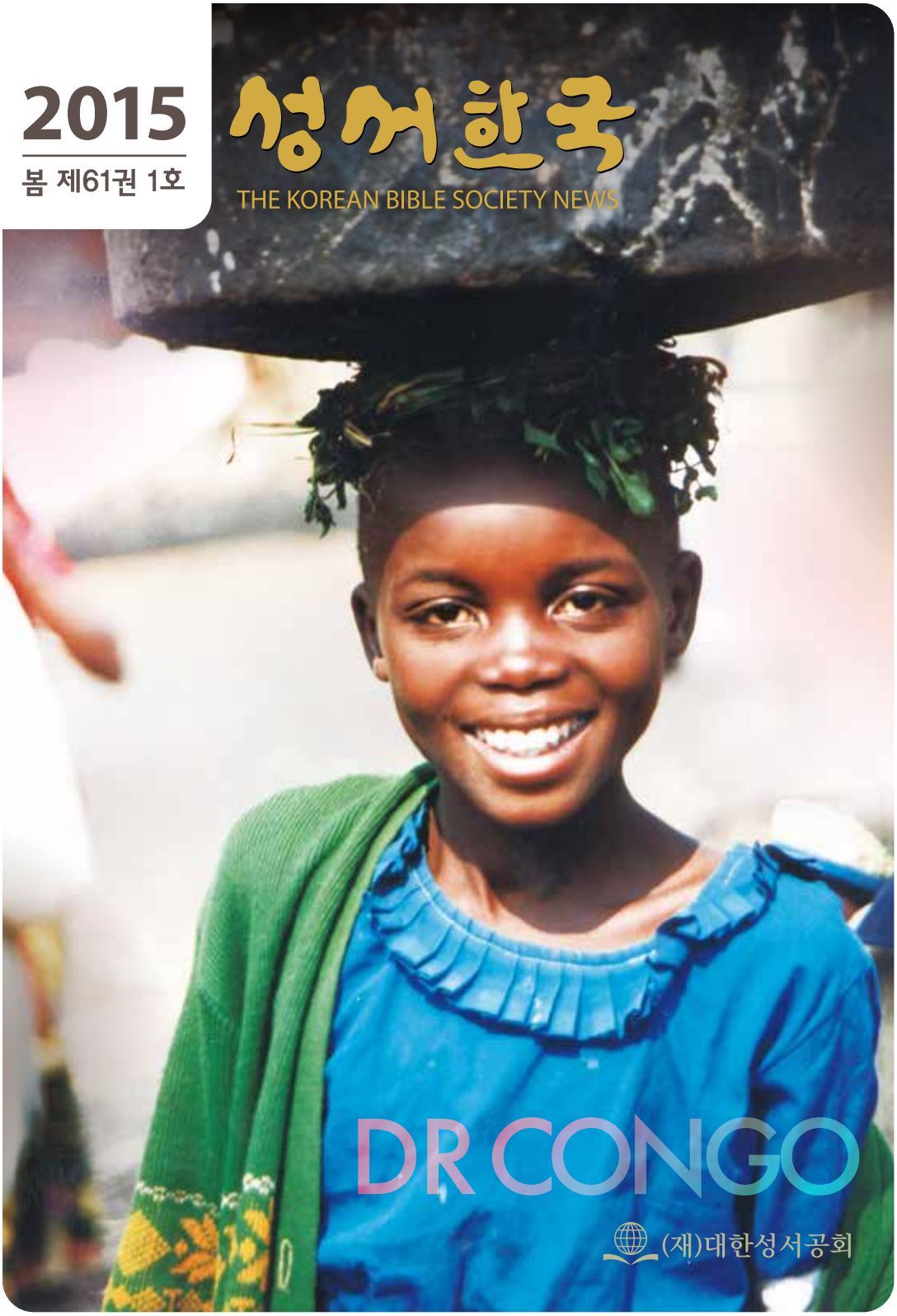
2015
봄 제61권 1호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DR CONGO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대한성서공회는 2015년 현재 세계 146개 성서공회들로
구성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 출판, 반포, 활용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성경 운동 네트워크로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THE KOREAN BIBLE SOCIETY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을 위하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번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첫 번역 성경을 기증 받은 미얀마 하와나가 부족 사람들

성서공회 사역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 성서공회들을 위하여 성경의 제작과
출판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증 받은 성경을 읽고 있는 쿠바 사람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아프리카와 동남아, 중남미의 많은 성서공회들은
문맹퇴치를 위한 문자교실 프로그램의 운용과 에이즈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웃들이 성경을 통해서 글을 깨우치고
복음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을 제작 지원하고,
에이즈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자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캄보디아 어린이

교회와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귀중한 성경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회원문의 : 02-2103-8861~3
편집문의 : 02-2103-8847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1~3
지로번호 : 7511327
발행일 : 2015년 3월 31일
인쇄인 : 김현수
인쇄처 : 삼립인쇄(주)
편집 : 강수현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찬성회원(후원,가정,평생회원) 회비 완납자 명단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
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
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CONTENTS

02 포토에세이

04 커버스토리
오랜 내전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콩고민주공화국

08 미자립성서공회 기증 현황
여러분의 후원으로 48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10 성경 나눔 동역자
선물 받은 성경 한 권의 은혜로,
해외에 6천여 부의 성경을 기증하다

12 후원 교회
우리 교회는 미얀마 쿠미 친 부족에게 첫 번역
성경을 보냈습니다! – 명성교회

14 성서 속의 인물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16 말씀을 만나다
첫 번째 부활절, 새 창조와 생명의 말씀을 만나다

18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 International Update
잠비아성서공회, 본 공회가 기증한 독립 기념 성경을
잠비아 초대 대통령에게 전달하다.
에볼라 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2 KBS 단신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 사역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회의가 개최되다
신촌성결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전 교인 성경 필사'
대한성서공회에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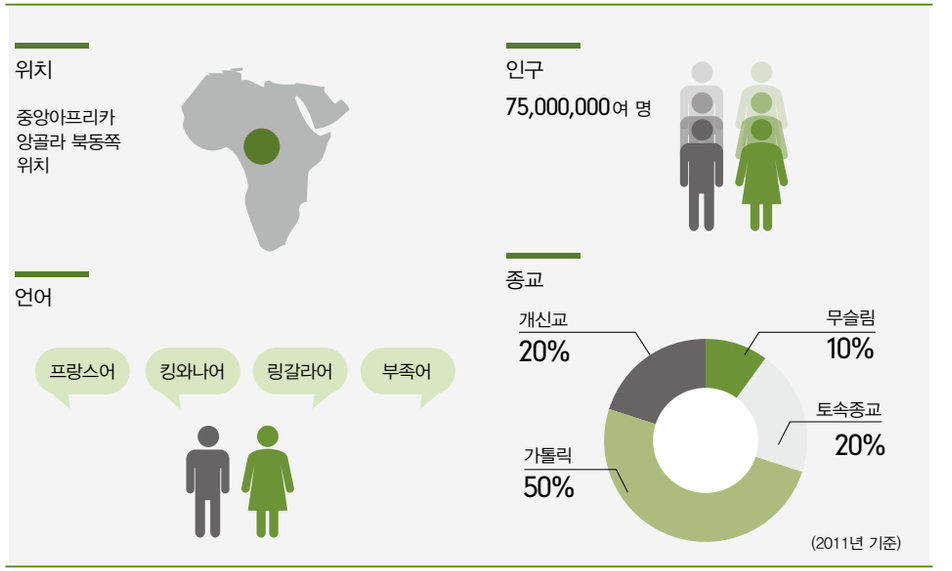
요르단에 거주하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과
요르단성서공회를 통해 보급 받은 성경과 구호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의 통로,
성경을 보내주세요."

전쟁과 죽음의 위협을 피해
국경을 넘어 요르단으로 건너온
시리아 난민은 150만 명(UN 등록)에 달합니다.
긴장과 두려움 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랜 내전으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콩고민주공화국



끊임없이 지속되는 내전

콩고민주공화국은 오랜 기간 내전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산업 활동이 위축되었고, 많은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을 잃었고, 굶주림에 시달리며 의료 지원을 비롯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영양실조와 에이즈 등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듯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고통 받고 있으며 끊임없는 내전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에 콩고민주공화국성서공회와 지역교회 및 공동체에서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함께 진행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그램'을 통해 에이즈 예방 교육을 실시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에이즈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다.

특별히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 상담사를 교육하고, 그 상담사는 정신적, 육체적인 상처를 입은 약 6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어 말씀을 통한 새로운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목회자들이 나누어서 읽고 있는 성경

성경이 부족한 콩고민주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영적인 양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성경이 턱없이 부족한 이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많은 교회는 성경이 부족하여 예배시간에 성경 봉독과 설교를 생략하고 찬양, 기도, 간증으로 예배를 진행한다. 특히 목회자들 역시 성경 한 권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한 권의 성경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읽으며, 한 편의 말씀을 읽기 위해 오랜 시간을 걷고, 카누로 이동하며 나누어진 성경을 번갈아 본다. 또한 토속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많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가 어렵다.

콩고민주공화국에 전달된 첫 번역 음반자어 성경

성경이 목마른 콩고민주공화국 음반자 부족에게 지난 2013년 12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의 후원으로 자신의 언어로 처음 번역된 성경 10,000부를 전달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 14일, 에쿠아터(Equateur) 주 숲우방기 행정 구역의 중심도시에서 약 84km 거리에 있는 분잘라 교구의 야캄바 성당 뜰에서 정부 관료를 비롯한 2,159명이 모여 봉헌식을 가졌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말로 말씀하십니다.”

봉헌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성경이 번역되는 동안 반복되는 내전으로 재정 지원이 줄어 성경 번역이 중단될 위기를 겪었고, 몇몇 번역자들은 아내와 사별하는 아픔도 겪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장로회연합회의 도움으로 성경을 받을 수 있게 된 이들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말로 말씀하십니다.”라는 감사 기도와 감격으로 봉헌식을 드렸다.

하지만 아직도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자신의 성경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본 공회는 지난해 10,302부에 이어 올해 11,360부의 성경을 기증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도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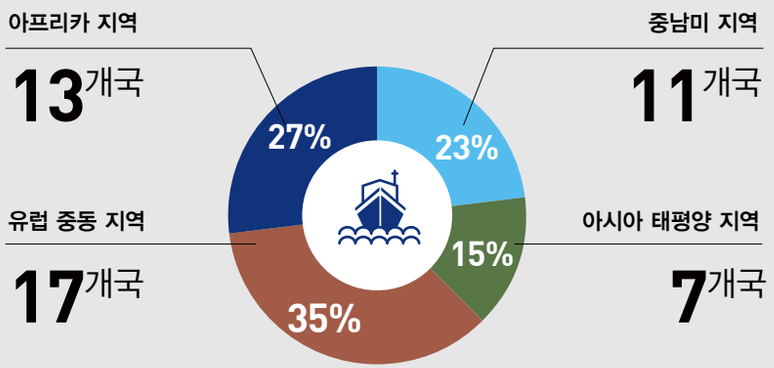
콩고민주공화국에 보내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부의 성경이 들어간다. 이 컨테이너가 채워져 오랜 내전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입은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에게 성경이 전달되어 이들이 말씀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

2014년 12월, 분잘라 교구의 야캄바 성당 뜰에서 열린 음반자어 성경 봉헌식

후원문의

매월 만 원이면 콩고민주공화국 사람들에게 **매월 2권**의 성경을 보낼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

여러분의 후원으로
48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아프리카 지역(13개국)
Africa

1. 가나
2. 감비아
3. 기니
4. 나미비아
5. 보츠와나
6. 세이셸
7. 시에라리온
8. 에리트레아
9. 우간다
10. 짐바브웨
11. 케냐
12. 코트디부아르
13. 콩고민주공화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7개국)
Asia & The Pacific

1. 남태평양
2. 네팔
3. 대만
4. 미얀마
5. 베트남
6. 캄보디아
7.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코트디부아르

네팔

베트남

유럽 중동 지역(17개국)
Europe & Middle East

1. 걸프
2. 그리스
3. 라트비아
4. 레바논
5. 루마니아
6. 모로코
7. 불가리아
8. 슬로바키아
9. 슬로베니아
10. 알제리
11. 에스토니아
12. 요르단
13. 이스라엘
14. 이집트
15. 터키
16. 폴란드
17. 헝가리

중남미 지역(11개국)
Central & South America

1. 미국
2. 베네수엘라
3. 볼리비아
4. 서인도제도
5. 아르헨티나
6. 에콰도르
7. 온두라스
8. 우루과이
9. 코스타리카
10. 쿠바성서위원회
11. 파나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루과이

파나마

선물 받은 성경 한 권의 은혜로,

해외에 6천여 부의 성경을 기증하다

지난 2월 24일, 정경숙 집사(광주벧엘교회)의 후원으로 캄보디아에
크메르어 성경 2,050부, 코스타리카에 스페인어 성경 4,000부를 보내는 기증식을 하였다.

이번에 캄보디아와 코스타리카에 성경을 기증할 수 있도록 후원한 정경숙 집사(광주벧엘교회)는 36년 전 지인에게 선물 받은 성경을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광주광역시의 한 초등학교 교원인 정 집사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신론자였다.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부임하기 전 정 집사는 한 선배로부터 성경 한 권을 선물 받았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도 찾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교회의 예배 시간을 몰라 매일 교회를 갔고, 한 달쯤 지나서야 예배 시간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정 집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일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번에 정 집사가 성경 기증을 결심하게 된 것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성경읽기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해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정 집사는 성경읽기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외성서사업에 대한 안내를 보았고,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 집사는 성경 기증 외에도 컴퓨터가 없어 손으로 직접 써가면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소수 민족 성경 번역자들을 위해 중고 노트북 20여 대를 기탁하였다.

선물로 받은 성경 한 권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성경 기증을 결심한 정 집사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말하였다.

컨테이너에 성경을 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캄보디아와 코스타리카에 성경을 기증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증하는 성경은 캄보디아와 코스타리카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으로 갈급한 심령들에게 단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이들에게 흘러가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든든히 서가게 해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통로인 성서공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곳에 생명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정경숙 집사의 기도 중에서

이번에 기증 받는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의 95%가 불교인이며, 기독교인은 2%에 불과하다. 불교가 국교인 이 나라에서 성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캄보디아성서공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기독교를 접하기 쉬운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젝트와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빈곤한 농촌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교재로 나누어주면서 글자를 가르치는 문자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성경을 통해 글자를 배우게 되고, 눈이 열리고,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캄보디아 문자교실

이번에 기증 받는 코스타리카는...

중앙아메리카 남부에 위치한 스페인어권 국가로 인구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또한 코스타리카는 인구의 25%가 빈곤계층으로, 코스타리카성서공회 또한 2, 3년 전만 해도 단 한 권의 성경도 보급할 수 없던 때가 있었다.

코스타리카의 젊은이들은 각종 폭력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코스타리카성서공회는 많은 젊은이들이 기증 받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희망을 얻기를 소망하며, 이 프로젝트에 사용할 성경을 대한성서공회에 요청하였다.

성경을 들고 있는 코스타리카 어린이

우리 교회는 **미얀마 쿠미 친** 부족에게 **첫 번역 성경**을 보냈습니다! – **명성교회**

지난 2월 15일, 명성교회(김삼환 목사)에서 미얀마의 쿠미 친(Khumi Chin)어로 처음 성경이 번역되어 제작된 3,100부를 기증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이 성경의 번역과 제작은 명성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기증하는 **명성교회**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성경증정 – 김삼환 목사, 권의현 사장

쿠미 친 성경 기증 감사예배 전경

명성교회(김삼환 목사)는 2012년부터 대한성서공회의 미얀마 소수민족을 위한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를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기 시작하였다. 본 공회는 2011년부터 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을 맞이하여, 미얀마성서공회가 진행하는 5개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명성교회에서 이 프로젝트 중 파오어와 쿠미 친어 성경 번역 지원비 및 성경 제작에 필요한 헌금을 기탁하였다. 본 공회는 이 헌금으로 성경 제작에 착수하여 지난 1월 쿠미 친어 첫 번역 성경 제작을 완료하였고, 2월 15일에 명성교회에서 기증식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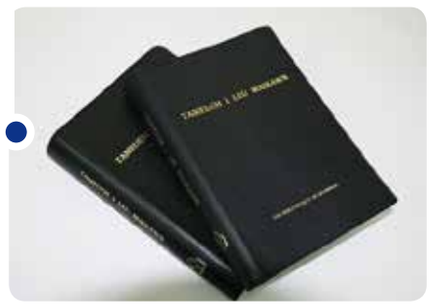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성서공회를 통하여 현재 대한민국에도 성경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도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삼환 담임 목사의 축사 중에서

미얀마 쿠미 친 부족은 명성교회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명성교회의 후원으로 번역되고 제작된 쿠미 친 성경은 미얀마 서부 변경인 '친'지역에서 살고 있는 쿠미 친 부족을 위해서 처음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쿠미 친 부족들이 살고 있는 주변 지역은 현재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간의 분쟁이 극심한 곳으로 미얀마 현지인들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쿠미 친 부족 중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며, 최근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미 친의 젊은이들 중에 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번에 쿠미 친어로 번역된 성경이 이 부족의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사장 인사말 중에서



이번에 기증하는 미얀마 쿠미 친 첫 번역 성경

드디어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처음 받게 된 쿠미 친 부족 사람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쿠미 친 부족 사람들은 5월 10일 팔레모아에서 열릴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목회자들과 수백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갖게 되는 성경을 봉헌하는 감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지속적인 기도로 인하여 쿠미 친 부족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래에 쿠미 친의 역사를 변화시킬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얀마성서공회 코웨이 람 탕 총무의 감사 인사 중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요셉
베네뎃토 젠나리(1570–1610년)가 그린 아리마대 요셉

관련 본문
마 27:57–61; 막 15:42–47; 눅 23:50–56; 요 19:38–42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의로운 제자

사복음서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에 앞장선 사람이 사마리아 남쪽에 있는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 요셉(마 27:57)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당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요셉은 예수님을 정죄한 유다 공의회 산헤드린 의원이었다(막 15:43; 눅 23:50). 공의회의 결정에 요셉은 동의하지 않았다(눅 23:51).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막 15:43; 눅 23:51)이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눅 23:50). 요셉은 숨기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다(마 27:57; 요 19:38).

대담한 행동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재산이 많고 사회에서 명망 있는 사람(막 15:43)이었는데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했다(마 27:58; 막 15:43; 눅 23:52; 요 19:38). 이는 위험을 무릅쓰는 대담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다(막 15:43). 사람들이 그를 범법자의 패거리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었다고 할 위험도 있었다. 이를 피하려면 종을 시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리하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날 해가 지기 전에 장사 지내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지켰다. 당시 로마 관습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받은 범죄자의 시체는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을 때까지 며칠 동안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아 두었다.

장례 준비, 새 무덤에 모시기

무덤에 모시기에 앞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몰약과 침향(알로에)을 바르고 고운 베(린넨 천)로 시신을 감쌌다(요 19:39-40). 니고데모는 유대 공의회 의원으로(요 3:1 개역개정판 난외주 참고)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는데 향료를 준비했다(요 19:40).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가족이 쓰려고 얼마 전에서야 사들인 새 바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다음에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았다(마 27:60; 막 15:46). 이 모두 서둘러 끝내야 했다. 날이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는데, 밤이 시작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례에 참여하지 않았다. 몇 사람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을 따름이다(마 27:61; 막 15:47; 눅 23:49).

그 밖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기독교 초기 문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다. 유대인들은 화를 내며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요셉을 구해 주셨다고 한다. 짐작하는 바로 나중에 요셉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다. 중세의 전설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선교사로 영국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쓰신 잔을 그리로 가져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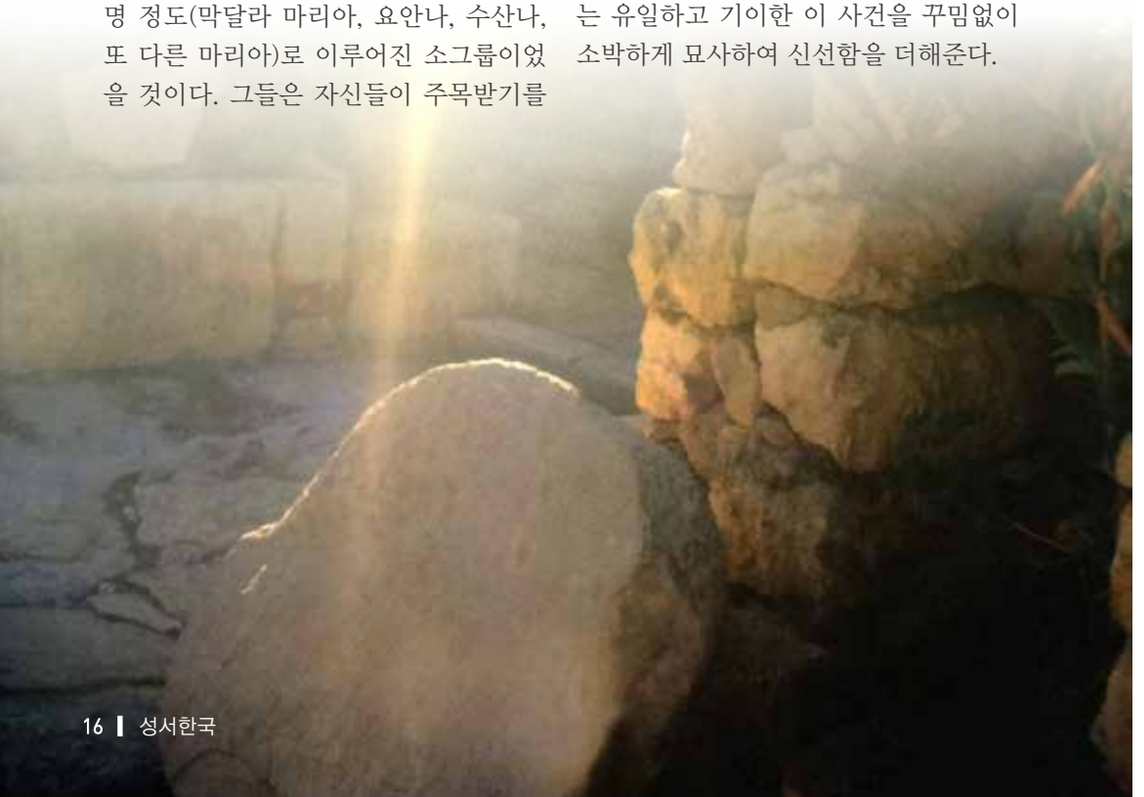
로기어 폰 덴 바이덴의 그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다" 중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모시는 부분.

Die Menschen der Bibel. Ein illustriertes Lexikon der Heiligen Schrif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Who's Who in the Bible? An Illustrated Biographical Dictionary* (Reader's Digest Association, 1994) 중에서 (편역 : 박동현)

첫 번째 부활절,
새 창조와 생명의 말씀을 만나다

죽음의 자리에서 피어난 희망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의 시신이 매장되고 이틀이 지났다. 바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여성들은 예수를 매장하는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새벽 전에 일어나 도시 어딘가에서 만나고 도시의 성벽에 있는 정원문(Garden Gate)을 조용히 통과하여 사용되지 않는 돌산, 이제는 야만적인 고문과 정치적인 불의 그리고 비극과 관련된 장소로 돌변한 그곳으로 향했다. 춥고 눅눅한 4월의 아침이었다. 그들은 아마 네 명 정도(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수산나, 또 다른 마리아)로 이루어진 소그룹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다만 힘을 합쳐 돌을 굴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한 것이 분명하다. 아주 짧은 여행이었지만,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여정이 되었다. 그들의 시야에 무덤이 들어왔을 때 돌이 이미 치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두려웠을 것이 분명하지만 매장지 안으로 용감하게 들어서자 수의(壽衣)는 그대로 있었고 예수의 시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것이 그들이 목격한 장면이다. 그 다음에 생긴 일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복음서 저자들에게도 최고의 장면으로 남아 있다. 누가는 유일하고 기이한 이 사건을 꾸밈없이 소박하게 묘사하여 신선함을 더해준다.



생명을 품은 첫 번째 부활절

그 날은 후에 길이 기억될 첫 번째 부활절이었다. 누가는 부활한 예수가 글로바와 그의 동료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나타났고, 베드로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다고 전한다(눅 24:13-49).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상실로 인한 슬픈 마음이 예수와의 새로운 관계로 대체되었다.

빈 무덤(예루살렘 Garden Tomb 내부)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의 놀라운 기쁨과 함께 이 유일한 사건이 그들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무덤을 초월하는 생명이 부활한 예수의 몸에 있고, 그의 모든 백성이 언젠가 기쁘게 맞이할 부활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음을 의미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침내 그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새 시대를 열며 그의 창조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을 계시함을 의미했다. 또한 예수가 이제 진정한 메시아, 참된 주님임을 의미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제 중요한 책임과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새로운 역할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들만이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눅 24:48). 세상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성 밖에서 일어난 예수의 부활은 때가 차면 제자들이 세계로 여행하며 하나님이 선택한 만왕의 왕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그 감격과 기쁨이 예수의 부활 안에서 발견되지만, 그들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 시작되고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이 장면은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품은 거룩한 자양분이다.

>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
> (눅 24:3-9, 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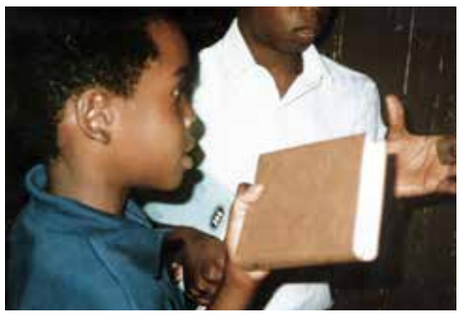
In the Steps of Jesus (Lion Hudson, 2009) 중에서(번역 : 윤철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볼리비아

볼리비아성서공회는 지속적으로 성서 반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서공회가 반포하는 성경을 통하여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아이들, 에이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동 카리브해



동 카리브해에 위치한 성서공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적인 후원이 계속되고, 지역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시 활성화되어 교회, 지역으로부터 모금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레바논

레바논의 국가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 천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진행하였던 성서 지원 사업과 'Bible World and Books for Life' 프로그램이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준비하고 있는 '1년 1독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성경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스리랑카

스리랑카성서공회는 수화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밀어와 신할라어로 되어 있는 수화 성경 용어 사전이 비디오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각 장애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성서공회는 불안한 국가적 상황으로 인하여 성서반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반포할 성경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이곳에 필요한 성경이 채워지고, 성서공회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불가리아

불가리아성서공회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서공회 직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서공회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잠비아의 초대 대통령 케네스 카운다(왼쪽)에게 본 공회가 기증한 기념 성경을 전달하는 잠비아성서공회 총무(오른쪽)

잠비아성서공회, 본 공회가 기증한 독립 기념 성경을 잠비아 초대 대통령에게 전달하다.

잠비아성서공회는 본 공회가 특별 제작하여 기증한 잠비아 독립 50주년 기념 성경을 잠비아 초대 대통령 케네스 카운다에게 전달하였다고 전했다. 이 성경은 작년 잠비아성서공회 이사장과 총무가 내한, 방문하였을 때 개발 의뢰하여 특별 제작된 성경이다. 잠비아의 독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본 공회의 제작팀과 디자인팀이 협력하여 잠비아에서 널리 사용되는 영어 성경을 잠비아 국기를 활용한 디자인의 표지로 제작하였다.

이 기념 성경은 원래 10월에 계획되었던 독립 50주년 행사 때 배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 기간 중 잠비아의 6번째 대통령이 소천하여 이 계획은 중단되었다.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잠비아성서공회는 이 성경을 학교와 교회에 보급하였다.

본 공회는 잠비아 독립 50주년 기념 성경을 비롯한 총 8,000부의 영어 성경을 제작하여 잠비아성서공회에 기증하였다. 잠비아성서공회의 맘브웨 총무는 서신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잠비아성서공회의 선교와 성서사업을 위해 성경을 기증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잠비아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가져주시길 부탁하였다.

본 공회가 제작한 잠비아 독립 50주년 기념 성경

에볼라 바이러스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절망으로 뒤덮인 나라에는 구원의 손길이 이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됐다.

라이베리아성서공회에서는 에볼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희망을 전달하고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성서를 비롯한 오디오 성경을 구호 식량, 세면도구, 의류 등과 함께 넣어 에볼라로 인해 집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감염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교회들 또한 협력하여 에볼라 바이러스 희생자들의 가족을 도왔다. 성경은 낙심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어 기독교 단체들과 목회자, 지역 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유족들을 위로하였다. 850개의 교회와 1,35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 에볼라로 인해 고통 당하는 사람들과 유족들을 위해 기도의 장을 만들었다.

여전히 각 성서공회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프로젝트'에 참여한 라이베리아 사람들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 사역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회의가 개최되다

다음 세대(Next Generation) 회의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

본 공회 로스기념관(경기도 용인시 소재)에서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다음 세대의 말씀 참여와 양육을 위한 사역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다양한 지역적, 문화적, 종교적 상황을 대표하며 다음 세대 사역을 선도하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11개국 회원 성서공회 대표 17명과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청소년 사역 전문가 2명 외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전문 사역 단체인 'One Hope'의 청소년 사역 전문가, 국제성서유니온협회의 말씀 활용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회의가 진행된 5일간 서로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사역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사역 경험을 나누는 한편, 강도 높은 토론을 거쳐 전 세계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는 성서공회들이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역 모델과 전략을 제안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본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이 일차적으로 도출한 안은 앞으로 각 내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완성되어, 내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세계 총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신촌성결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전 교인 성경 필사'

신촌성결교회(이정익 목사)는 2015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4주에 걸쳐 '전 교인 성경 필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고,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장로, 권사, 교회학교 등 1,752명의 성도들이 참가한다.

본 행사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날 성경이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필사를 통해 전해져 왔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자 마련하였다.

참가자 한 사람당 한 페이지씩 필사한 것을 모아 성경책을 완성하는 것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오후에 약 440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필사를 진행한다. 필사를 할 성경책은 담임 목사와 창립 60주년 위원회가 논의하여 본 공회의 〈개역개정판 큰 활자 성경전서〉로 선정하였다. 단순히 성경을 손으로 쓰는 것을 넘어 말씀을 온전하게 기록하기 위해 감수도 철저하게 진행된다.

이 필사한 성경의 원본은 신촌성결교회 역사기록전시관에 전시할 예정이며, 본 공회는 신촌성결교회의 요청으로 필사 참가자들의 사진이 담긴 약 1,700여 부의 필사 성경을 제작하여 전달할 예정이다.

신촌성결교회 성도들이 필사를 하고 있는 모습

INVITATION

대한성서공회에 초대합니다!

성경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로 반포되는 현장, 대한성서공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부터 남, 여전도회 등 모든 연령층이 방문하여 대한성서공회와 성서사업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위치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강의

본 공회에 방문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와 성서 번역, 출판, 보급에 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서전시실 관람

세계의 수백 개의 언어로 된 성경, 히브리어 성서, 그리스어 성서와 칠십인역, 라틴어역, 영어, 독일어, 중국어 등 주요 역본들이 전시되어 있어 성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위치

반포센터 답사

국내 외 효율적인 성서 보급을 위하여 성서 제작에 필요한 재료와 성서를 보관하는 자동화 시설을 갖춘 창고와 성서연구와 관련 있는 인접분야의 자료들을 갖추고 있는 성서학도서관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위치

(주)바이블코리아 견학

2001년에 설립된 제본소 (주)바이블코리아에서는 하루에 4만 2천 부의 성서를 제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본소를 방문하시면 성경이 제본되는 모든 공정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02-2103-886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대한성서공회

'매달 한 권의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 신청서

신 청 인	(남, 여)	교 회 명		교회직분	
휴대전화		집 전 화			
주 소					
약정금액	☐ 매월 100,000원(성경 20권) ☐ 매월 50,000원(성경 10권) ☐ 매월 20,000원(성경 4 권) ☐ 매월 10,000원(성경 2 권) ☐ 매월 5,000원(성경 1 권) ☐ 매월 원(성경 권)	이메일주소	☐ 소식지 이메일 요청		
		이 체 일	☐ 매월 5일 ☐ 매월 15일 ☐ 매월 25일 (잔고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1회에 한해 재출금 됩니다.)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휴대전화	
		예금주 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증 상의 생년월일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역에 후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자동이체를 위해 동의함에 체크해주세요 !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예 금 주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1.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합니다.
2. 자동이체 등록시, 효성에프엠에스(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와 금융기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금주[납부자]의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3.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 효성에프엠에스(주), 금융기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fnc.c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팩스 (02-2103-8896)로 전송해 주세요.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으로 발송해 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를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대한성서공회 좋아요

대한성서공회 검색

성경 지식을 활용하세요!

무료
성경 읽기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 www.bskorea.or.kr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쿠바

쿠바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세 배 이상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쿠바 교회의 교인들은 열 사람 중 한 사람만이 성경을 갖고 있고,
그 성경조차도 너무 낡아서 읽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새롭게 교회로 몰려드는 젊은이들에게 나눠줄 성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미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자체적으로 성경을 제작할 시설이 전혀 없어서
외국 성서공회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력이 좋지 않아도 안경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고,
게다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큰 글자의 성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해 큰 글자 스페인어 성경 1만 부를 쿠바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간절히 기다리던 큰 글자 성경을 받아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한 권의 성경은 가족 모두가 함께 읽는 가정 성경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쿠바는 생명의 말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입니다.
수많은 쿠바 사람들이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알라인 몬타노 에르난데스 목사(쿠바성서위원회) –

쿠바에 보내는 컨테이너 한 대에
10,000권의 성경을 실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스페인어 큰 글자 성경 20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쿠바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성경 기증을 위한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 대한성서공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하나은행 224-910049-47104
외환은행 630-008603-501	농협은행 355-0025-0990-53
수협은행 033-01-085327	우 체 국 011916-01-000076

▸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
팩스 : 02-2103-8896 / www.bskorea.or.kr

(재)대한성서공회